

## 고철 모으기 운동 근본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

세계의 경제회복, 중국특수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의 수요증가와 폐지, 고철, 비철, 플라스틱류 등 우리나라의 많은 재활용 폐자원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서 금년 들어 국내의 관련기업 및 재활용 업계의 원자재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에 편승하여 특히 고철, 비철(구리, 니켈 등) 가격은 2003년 전반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폭등하게 되었다.

급기야 정부의 일부부처와 지자체 및 단체가 나서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와 관련 단체가 협력하여 고철을 포함한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국내 원자재난의 심각성이 보도되었고 홍보된 터라 많은 국민의 호응과 사업장 등의 동참으로 상당한 고철이 수집되어 관련 제조업체로 반입됨으로서 국내의 고철 자재난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모은 고철을 가지고 일부 지자체와 운동단체에서 장사 속 행태를 보이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과 재활용 단체의 분노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고철 유통 가격은 고철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어 고철의 수집량이 쌓여지면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업체들은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반입(매입)량을 억제함으로써 단가 낮추기를 더욱 유인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모아놓은 고철이 매입한 형태가 아닐텐데도 입찰형태의 매출을 시도하고 또 어떤 지역의 단체에서는 내리기 이전에 높은 단가일 때 매출계약을 사전에 해놓고 수집시에는 이미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음에도 한 몫 잡겠다는 자세로 그 가격을 고수하여 결국 재활용 수집 운반 업체가 손해를 감수해



발행인 장준영

야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고철 모으기 운동의 근본 취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다.

고철 모으기가 국내 원자재난의 해소가 근본 목적이 라면 주관 측에서는 모아 놓은 고철에 기본적 경비를 감안하고 이를 매입 운반하는 업체(수집·운반업체)는 운반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철강업체로 좀더 낮은 가격의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운동의 기본 흐름이어야 할 것이다.

수집·운반업체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장사 속으로 고철을 팔아서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가령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며 차라리 기부금을 내라는 편이 훨씬 땃땃할 것이다.

고철 모으기 운동이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착안된 것이라면 더더욱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고철 모으기 운동에서 폐자원 수거운동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기왕에 한마디 덧붙이면, 처음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운동전개의 일선인 지자체의 광장부서가 재활용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재활용 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흐름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고 운동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더욱 지향되도록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